

# 재발방지 제도적 장치 절실

## 軍 불교탄압 실태와 대책

17사단해병, 김대통령국방부예배에 이어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으로 마침내 세번째 국방장관의 사과문이 발표됐다. 결과적으로 장관비밀때마다 불교탄압으로 사과해 온 것이다. 이처럼 군부대가 선교장화 된 현실에서 불교 편향 및 탄압 사건이 끊이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높게 일고 있다. 근본적인 종교평등을 실현 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소리다.

국방부가 최근 육군특수전학교 사태와 관련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군 종교탄압을 극명하게 보여준

황황하는 군부대내의 '불교탄압 개선교감요' 사태는 일부 관신도들의 우발적인 행동이라기 보다는 계급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선교화하려는 작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군종목사단이 6월 26일 여경도회관 대강당에서 'VISION 2020과 여호와 이래 신자 연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97 군종교전력 세미나'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년 군대에 들어오는 30여만명의 장병중 매년

있으나 각부대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군불교 한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논산훈련소 하사관학교등 훈련소와 주특기관련 교육부대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논산훈련소 입소대대의 경우 신상명세서에 기존세제자는 십자가를 표기하게 하고 세례명이 없으면 이름을 쓰라고 해서 세례받게 한다. 또 전북 익산 하사관학교에서는 인격지도 교육시간에 퇴역장성을 초청하여 8시간

동안 신앙간증을 하는 등 종교 편향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하는 군은 다른 사회에 비해 그만큼의 평등과 중립이 보장돼야 함에도 이같은 종교문제가 발생 하는 것은 군의 단합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군부대 종교편향에 대해 군종단이 소극적으로 보이는 활동에도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군조직상 어려움도 있지만 사전 사후 군포교의 조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단차원의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6월 24일 첫 운영회의를 열어 19명의 부회장을 선임했다. 운영회의에 앞서 월주 총무원장, 송재근 회장 등 참석자들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 “할일 산적한데 아직 들짜기”

### 중앙신도회 출범 백일만에 첫 운영회의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근)가 24일 창립 이후 첫 운영회의를 열고 부회장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또 회장단 및 지도위원 고문 이사의 월회비 납부제를 실시키로 했다.

중앙신도회는 이날 회의로 “시동을 걸고 출발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월주 총무원장 취임 이후 2년여의 산고 끝에 출범한 중앙신도회가 창립된 지 3개월이나 지나서 처음 열린 운영회의에서 단지 부회장단 인선과 월회비제 도입에 그친 것은 너무 더딘

발걸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딘 이유는 신도회와 총무원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세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장 월주님은 “그동안 심수차례의 회의를 열어 부회장단 명단을 확정짓고 오늘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6명의 명단(3명은 회의 다음날 추가)을 확정짓기 위해 3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신도회는 4월초 50여명의 추천명단을 총무원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에 신도회 운영기금

# 정보교환 훼손원천봉쇄

## 조계종 환경분쟁사찰 네트워크 구축키로

조계종 사찰환경위원회(위원장 능관·사회부장)가 6월 20일 개최한 '사찰환경 연대 연석회의'는 사찰환경 분쟁을 겪고 있는 사찰 실무자들이 처음으로 사찰환경훼손 예방 및 사후 대응책을 강구했다. 환경분쟁 사찰을 중심으로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키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불교환경회의를 열고 98년 1월중 <불교환경백서>를 발간할 계획은 광복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연석회의의 성과는 환경분쟁을 경험했던 실무자들이 모여 중단과 사찰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사찰환경분쟁을 겪고 있는 실무자들은 대처방법이 늦어 심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즉 1차 사업보고



◇환경분쟁사찰 주자들이 연석회의를 하고있다.

## 지역환경회의 상설화 '환경백서' 발간 추진

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업의 보완 수정조치만 가능할 뿐 사업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81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 발효됐지만 지금까지 대전 공원과 계획된 무산됐을뿐 취소 사례는 한건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사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1차 사업보고서가 나오기 전 이의신청을 하고 캠페인운동 등을 통해 여론화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찰환경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처하기로 결의한 것은 향후 예상되는 사찰환경분쟁에 배가를 막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분쟁사찰 중심으로 지역불교환경회의를 상설화하는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키로 결의했다. 즉 사찰과 환경단체가 연대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산림의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조성, 캠페인 운동 등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위해 사찰환경보존위는 7월 중순 청주 불교환경회의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환경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환경백서> 발간은 7월말까지 발간추진위를 구성한 후 10월과 11월 두차례 공청회를 거쳐 98년 1월 중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김중근 기자

## 불자피해 부지기수... 군 화합 저해 기독교 '전군선교화' 계획 주시해야

다. 입교전 하교생 71명중 불자가 35명이었던 것이 입교후 19명이나 감소했다. 감소 이유는 대부분 인성교육차 교화에 갔다가 세례명세서에 서명해서라고 응답했다. 또 입교후 신입생 환영식도 교회에서 성가를 부르고 기도했으며, 인성교육하며 기도서약을 생각없이 제출한 뒤 세례가 이루어져 당황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종교로 인한 불이익 사례는 일요일 기독교 신자는 교회가는데 불교신자는 작업계 했으며 군목사가 불교신자들에게 공수기본과교교육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퇴교시킨다고 자주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비이성적인 불교탄압 관행이

25만명을 기독교 신자 장병으로 양육하면 2천5백만여명의 기독교 신자가 탄생해 기존신자 1천2백여명을 합하면 전체 인구 75%가 기독교 신자로돼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또 군선교를 위한 기독교교의 역할로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개인생활 각자의 직책과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목의 목회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불배 그동안 불교편향사태에 대해 최근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최근에도 종교편향사태는 대소의 차이는

비가 내린다. 장마비가 내린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6월 25일, 중부지방 곳곳에 게릴라식 집중우리가 쏟아졌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울 장마기간은 예년보다 길고 강우량도 많을 것이라고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올해 여름 비 피해를 걱정하는 우리국민 가슴에 큰

내려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는데 산비탈의 발은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기엔 너무도 약조건이다. 그러나 산림을 파괴하고 산업시설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눈에 보이는 대로 유출한다.

북한의 실상이 이처럼 처참한데 조계종은 모아놓은 성금을 못 전하고 차기를 기다리고 있다. 남북적십자사가 7월말까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옥수수

“북한에도 비가 올텐데”

5만톤이 초과됐다. 북한도 꼭 필요하다.

배고파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성금을 전하기 위해 줄서서 기다려야 하나. 남북적십자사는 남한국민의 온정이 속히 그리고 제대로 북한동포에게 전달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몸에 화살이 박히면 화살을 먼저 뽑겠느냐 아니면 화살이 박힌 원인을 따진 다음에 뽑겠느냐.”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민족의 시련이러면 정부도 민간단체도 함께 극복의 슬기를 모으자.

5만톤이 초과됐다. 북한도 꼭 필요하다.

배고파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성금을 전하기 위해 줄서서 기다려야 하나. 남북적십자사는 남한국민의 온정이 속히 그리고 제대로 북한동포에게 전달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몸에 화살이 박히면 화살을 먼저 뽑겠느냐 아니면 화살이 박힌 원인을 따진 다음에 뽑겠느냐.”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민족의 시련이러면 정부도 민간단체도 함께 극복의 슬기를 모으자.

“북한에도 비가 올텐데”

5만톤이 초과됐다. 북한도 꼭 필요하다.

배고파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성금을 전하기 위해 줄서서 기다려야 하나. 남북적십자사는 남한국민의 온정이 속히 그리고 제대로 북한동포에게 전달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몸에 화살이 박히면 화살을 먼저 뽑겠느냐 아니면 화살이 박힌 원인을 따진 다음에 뽑겠느냐.”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민족의 시련이러면 정부도 민간단체도 함께 극복의 슬기를 모으자.

5만톤이 초과됐다. 북한도 꼭 필요하다.

배고파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성금을 전하기 위해 줄서서 기다려야 하나. 남북적십자사는 남한국민의 온정이 속히 그리고 제대로 북한동포에게 전달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몸에 화살이 박히면 화살을 먼저 뽑겠느냐 아니면 화살이 박힌 원인을 따진 다음에 뽑겠느냐.”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민족의 시련이러면 정부도 민간단체도 함께 극복의 슬기를 모으자.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편전(정경각).

## '97 문화유산의 해

### 나뭇결에 새긴 한국인의 마음결

#### 7월 테마여행 - 해인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국보제32호)을 봉안하고 있어 법보총량로 불리는 해인사는 802년 순응과 이경두 대사가 창건한 화엄심할중 하나입니다. 고려말 몽고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를 맞자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불심으로 몽고를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이 조성되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수많은 이름없는 각자들이 불경 한자를 새기고 절 하고 또 한자를 새기고 절 하고,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해 구국과 평화를 염원하여 만든 팔만대장경은 우리 불자들의 영원한 자긍심 그 자체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편전(국보 제52호) 역시 경관보존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안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 '불교문화 테마여행'

전문적인 절차로 인정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잡이를 '해인' (화엄경)의 '해인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원 강원 울린 등을 모두 갖춘 총림 해인사를 찾으면 "자기 자신을 바로 불사"라고 깨우침을 주시던 우리시대의 큰스님 '성철스님'의 사자후가 어느덧 메아리가 되어 가슴에 아로새겨집니다.

■ 참가 안내

◇출 발: 7월 27일(일) 오전7시·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점심 각자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 불교 성지 순례

인도 성지순례의 최적기는 10월~3월입니다. 인도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펄리 취향으로 더욱 편리해진 인도 성지순례,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 단체 성지순례 예약 접수 중 ●
- ▶ 인도 네팔 7대 성지순례 9월 : 145만 원
- ▶ 인도 네팔 태국 성지순례 15일 : 180만 원
- 성수구(12월~1월) 오금 및 단체는 별도 문의하십시오 -

### 인도 네팔 7대 성지순례 9월

서울 - 델리 바라나시 - 사르나트(녹야원) - 보드가야 - 라즈기르(영취산, 죽림정사) - 파르나 - 바이살리 - 쿠시나गर - 룸비니 - 발라푸르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사위성) - 러나우 - 델리 - 서울

### 인도 네팔 태국 성지순례 15일

서울 - 봄베이 - 오랑가바드(엘로라, 아잔타 석굴) - 보판(산지 대탑) - 델리 - 아그라(타지마할) - 바라나시 - 사르나트(녹야원) - 보드가야 - 라즈기르(영취산, 죽림정사) - 파르나 - 바이살리 - 쿠시나गर(열반당) - 카필라바스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사위성) - 룸비니 - 카트만두 - 방콕 - 서울

### 작은 티베트 라다크 북인도 11일

서울 - 델리 - 자이푸르 - 아그라 - 델리 - 스리나가르 - 카르길 - 레 - 델리 - 서울

출발일: 7월 22일, 8월 9일, 8월 23일  
동참금: ₩1,850,000

### 스리랑카 6일

서울 - 콜롬보 - 풀른나루아 - 시기리아 - 담불라 - 캔디(불치사) - 콜롬보 - 서울

출발일: 8월 21일, 9월 18일, 10월 16일  
동참금: ₩1,080,000

### 중국 실�크로드 10일

서울 - 북경 - 서안 - 난주 - 가옥관 - 톈황(천불동) - 무르판 - 우룸치 - 북경 - 서울

출발일: 7월 11일, 7월 25일, 8월 1일, 8월 8일  
동참금: ₩1,750,000

### 중국 티베트 네팔 10일

서울 - 상해 - 성도 - 라사 - 장제 - 시가체 - 시가 - 장무 - 카트만두 - 방콕 - 서울

출발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동참금: ₩2,350,000

### 미얀마 태국 7일

서울 - 양곤 - 파간 - 만달레이 - 양곤 - 방콕 - 아유타야 - 방콕 - 서울

출발일: 8월 13일, 8월 27일, 9월 10일, 9월 24일  
동참금: ₩1,350,000

## 부처님과 함께 하는 청소년 국토 사랑 대탐험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자연 친화적 레포츠와 참선 교육을 병행하여 심신이 조화된 최고의 상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 불자를 육성하고자 여름 불교 탐험학교를 운영합니다. 부처님과 함께 우리 국토의 빼어난 자연을 온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 ◆ 행사 일정(2박 3일)
- 1차: 7월 21일 ~ 23일
- 2차: 7월 26일 ~ 28일
- 3차: 8월 4일 ~ 6일
- ◆ 참가 대상
- 각 차수별로 40명씩 모집
- ◆ 참가비: 13만 원 (숙식, 교통, 강습, 티셔츠, 보험료 등 일체 포함)
- ※ 현대불교 독자는 11만 원
- ◆ 가족 캠프는 별도 문의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한국탐험학교

- 후원: 조계종 포교원, 문화체육부, 월정사, BBS, BTN, 목동청소년회관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한국탐험학교
- 전화: 738-0997(대표) 팩스: 736-2890

# 여름, 불교 탐험학교

일정	시간	활동 내용
발심의 날 (트레킹)	10:00	2호선 갈매역 롯데월드 호텔 앞 집결, 인원 점검후 출발
	10:00~13:30	이동(월정사, 조 편성 확인(과석 지정) 자기 소개
	13:30~14:30	월정사 도착 후 중식
	14:30~15:00	입교식(오리엔테이션)
	15:00~15:30	산행 준비: 올바른 트레킹 방법, 행선 교육
	15:30~17:30	산행(월정사 → 상원사 → 적멸보궁 → 월정사)
	18:00~19:30	석식 및 자유시간
	19:30~21:00	참선 교실
	22:00	취침(월정사 또는 상원사)
	정진의 날 (레프팅)	06:00~07:00
07:00~08:00		조식
08:00~09:00		불교 문화 교실 (불자 예절, 법문)
09:00~13:00		정선 동강 도착 후, 레프팅 교육, 레프팅 출발
13:00~14:30		중식(도시락) 후, 휴식
14:30~16:30		레프팅(세출발)
16:30~18:00		야영법 강의 및 야영 준비
18:00~20:00		취사, 부모님께 편지 쓰기
20:00~21:00		야간 산술놀이 트레킹(랜턴 준비) 후, 취침(정진)
회합의 날 (동굴 탐험)		06:00~07:00
	07:00~08:00	조식
	08:00~09:00	108배, 수묘식
	09:00~13:00	동굴 탐험(영월 지역의 원시 동굴)
	13:00~14:00	중식
	14:00~15:00	'청령포'(단종의 유배지)답사 후, 상경
	19:00	서울 도착 후, 해산

혜초여행사 전화: (02) 733-3900 팩스: (02) 733-3780 (110-140)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3층(안국동 로타리 조계사 옆)